칼 럼

정 문 재 뉴시스 부국장 겸 미래전략부장

황희(黃喜) 스캔들

오랜 풍상(風霜) 속에 진실의 색깔은 바랜다. 심금을 울리기 위해 비극적 요소를 덧칠하거나 과장한다. 이상형을 제시하기 위해 공(功)을 부풀리는 동시에 허물은 감춘다. 어느새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조작된 이미지만 전해진다. 신화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조선 초기의 명재상 황희(黃喜)의 모습도 그렇다. 청백리에 뛰어난 덕망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는 굴절된 이미지일 뿐이다. 과(過)도 상당했지만 공(功)에 묻혀버렸다. 그래서 성인(聖人) 같은 모습만 부각된다.

좌의정 황희는 1427년 우의정 맹사성, 형조판서 서선 등과 함께 의금부에 하옥됐다. 의금부는 주로 왕의 명령에 따라 중죄를 조사했다. 그만큼 이들의 혐의가 무거웠다는 얘기다.

이들은 살인사건을 은폐했다가 적발됐다. 황희와 서선은 사돈 관계였다. 황희는 서선의 아들 서달을 사위로 맞았다. 서달의 살인사건을 무마하려다 사달이 났다.

서달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온천에 갔다가 신창현(현재의 아산)을 지나쳤다. 서달은 "신창현 아전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며 종을 시켜 매질을 했다. 동료 아전 표운평이 이를 말리며 항의하자 서달은 그를 때려죽였다.

아전은 하급 관리다. 사사로이 관리를 때려죽였으니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서달은 아버지와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황희와 서선은 우의정 맹사성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맹사성의 고향이 신창현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힘을 쓰자 사태는 쉽게 봉합됐다. 표운평의 가족을 회유하는 한편 서달의 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웠다. 하지만 세종까지 속이지는 못했다.

세종은 관리의 살해 사건인지라 조사 문건을 꼼꼼히 확인했다. 세종은 문건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살인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의금부는 권력자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이 은폐된 것을 밝혀냈다.

세종은 격노했다. 고위 관리들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격노는 시늉에 불과했다. 서달은 교수형감이나 형장 100대를 때린 후 유배를 보냈다. 황희, 맹사성, 서선은 파면했다. 황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좌의정으로 복직됐다.

황희는 스캔들을 달고 다녔다. 뇌물과 간통으로 간관(諫官)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뇌물 때문에 사직한 적도 있다. 대사헌으로 재직하면서 금을 뇌물로 받았다가 '황금 대사헌'이라는 야유에 시달렸다.

황희는 박포(朴苞)의 아내를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정을 통했다. 박포는 이방원(태종)의 형 이방간을 부추겨 '2차 왕자의 난(방간의 난)'을 일으켰다가 패한 후 참수형을 당했다. 과부와의 간통이지만 조선시대의 엄격한 윤리로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었다.

세종은 황희를 몹시 아꼈지만 사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조선왕조실록 졸기(卒記)는 "황희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하여 집안을 다스리는데 단점이 있었으며, 청렴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황희는 1426년 우의정으로 발탁된 후 24년간 정승 자리를 지켰다. 1432년 70세 때 영의정으로 승진한 후 18년 동안 재직했다. 황희의 승승장구는 세종의 전폭적인 신뢰 덕분이다.

세종은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했다. 세종도 황희의 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활용하는데 주력했다.

세종은 "대신들 가운데 황희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다른 정승들과 비교해 그나마 청렴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황희 같은 사람이라면 공직 진출은 꿈조차 꿀 수 없다.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 납세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표절처럼 학자에게나 적용해야 할 기준까지 따져본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다 됐지만 아직 온전하게 내각을 구성하지도 못했다.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직접 대화를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관 지명자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점 때문에 발탁했는지를 설명하고, 그 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후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노력에도 야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역풍을 각오할 수 밖에 없다. 장관 지명자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장관은 이런 대통령 밑에서 열과 성을 다한다.

社 說

건강보험 국민 불안 씻어야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자리 잡는 등 지난 40년간 국민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헬스데이터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건강지표들인 기대수명은 81.8세로 OECD 평균(80.5세)보다 많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 보건의료보장체계가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성과다.

하지만. 앞날이 밝은 게 아니다. 벌써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와 뒤덮을 기세다.

지난 40년간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수년째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6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전 국민이 가입한 사회보장장치인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이중의 의료비로 가계의 진료비 부담은 높은 편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21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기록하며 비교적 곳간이 넉넉한 편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재정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는데다 만성 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질병 패턴이 변하고 재활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인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20%를 밑도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에만 과도하게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불공정한 부과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都	도읍	도	都邑華夏
邑	고을	읍	
華	빛날	화	▷뜻: 도읍은 왕성의 지위를 말한 것이고, 화하는 당시 중국을 지칭하던 말임.
夏	여름	하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따뜻한 보훈으로 실천

지난해 국정농단으로 인해 혼란스럽기만 했던 탄핵정국이 장미대선으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대통령은 새롭게 출발한 정부의 첫 국가기념식에서 유족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눈물 흘리며 아픔을 함께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도 형식적이기만 했던 국가기념식에서 특별한 감동을 느낀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지난 현충일 기념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리를 기념식장 가장 앞자리에 함께 하였고, 유공자를 직접 부축하여 자리에 모셨으며, 그동안 차관급이었던 국가보훈처를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여, 금년 6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대통령의 의지나 지시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모두가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가슴으로 새기고, 직접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지금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개선해야할 규제는 없는지, 잘못된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지 등등을 함께 고민해 나갈 때 그분들이 진정한 존경과 예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보훈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정립하는 과정이다.

만약 내가 일제로부터 갖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가슴에 태극기를 품으며 조국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라면, 6.25전쟁 때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지전에 참여했던 스무살 군인이었다면, 조국의 발전을 위해 타국의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했었던 참전유공자라면, 군부독재의 총칼 앞에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나섰던 시민이었다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공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누구라도 그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존경과 예우, 나라사랑 정신 확산 등을 위해 실제로 유공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을 펼쳐 나갈 것이다.

박소연 / 광주지방보훈청 보상팀장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